

“내를 건너서 숲으로 고개를 넘어서 마을로
 어제와 같고 오늘도 같 나의 길 새로운 길
 민들레가 피고 까치가 날고 아가씨가 지나고 바람이 일고
 나의 길은 언제나 새로운 길 오늘도…… 내일도……
 나를 건너서 숲으로 고개를 넘어서 마을로”

윤동주 시인의 ‘새로운 길’이라는 시(詩)처럼 매일매일 새로운 길을 이룬차로 누비며 우편물을 전달하는 행복 전도사, 저는 어느 시골 우체국 집배원입니다. 찬바람 불고 눈비 오는 날도 이룬차 한 대에 꿈과 희망을 가득 싣고 산을 넘고 때로는 논밭 길을 달려 도착한 집배 업무 현장에서 경험한 다양한 청렴 및 양심 관련 사연들 중 오늘은 어느 고객이 집배원에게 보여 준 아낌없는 칭찬 및 양심적인 행동과 공직 사회에서 어느 리더와 소통하면서 그가 보여 준 품격과 청렴도의 관계에 대해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우정사업본부 인터넷 우체국 칭찬 게시판에 특별히 잘한 것도 없는 저를 칭찬하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알고 보니 일주일에 세 번 정도 아기 이유식이 아이스박스에 담겨 택배로 배달되는 집의 고객이 올린 칭찬 글이었습니다. 이러한 저를 격려하기 위해서 상급 기관에서 선물을 보내왔습니다. 선물 포장을 뜯어보니 정성이 담긴 선물과 만년필로 성심성의껏 쓴 엽서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 선물은

↓ 칭찬받기
 하나를 보면 나머지는 알았다.
 공심은데 공이 팔심은데 팔심이다.
 아기엄마의 마음을 헤아려 이유식 택배
 배송에 정성을 기울여 주신 님은 두분만
 우체국의 자랑입니다. 고객행복으로 우체국
 을 밖내 주심이 감사드리며 작은 보람을 보냈
 고합니다. 2018.10.14

제가 받을 선물이 아니라 저를 칭찬해 준 고객께 드려야 할 선물이라고 생각하고, 다음 날 이유식 택배와 함께 그 선물을 전달하고자 고객 님의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항상 웃는 얼굴에 반갑게 저를 맞이하는 고객께 선물을 드리자 고생하는 집배원이 받아야 할 선물이라며 한사코 거절하면서 손사래를

치며 방으로 들어가 냉장고 문을 열더니, 음료수가 없다며 종이컵에 물 한 잔을 가져와 이거라도 마시라며 제게 권했습니다. 고맙다는 인사와 함께 물 한 잔을 받아 들고 승강기를 탔습니다. 컵 안의 물속에 고객의 청렴한 마음씨와 저에 대한 배려가 고스란히 녹아 있었습니다. 한 모금 마시자 감동의 눈물이 핑 돌며 눈가에

이슬이 맺힙니다. 세상에는 어려운 자에게 역지사지하며 자신의 것을 아낌없이 베풀거나 따뜻한 말 한마디로 상대를 위로하고 칭찬하는 양심 바른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분들로 인하여 우리 사회가 더 청렴해지고 훈훈하게 유지되고 있는 듯합니다. 물 한 컵을 모두 들이켜자 온몸이 생기가 돌며 긍정의 에너지로 가득 찼습니다. 대한민국 집배원으로서의 강한 자부심(自負心)을 느끼며 다음 목적지로 힘차게 이륜차의 액셀을 당깁니다.

예전 경험으로는 칭찬 글이 올라오면 선물만 보내왔지 정성스럽게 쓴 손 글씨 엽서를 보내온 적이 없었습니다. 저는 이 엽서를 쓰신 분이 누구인지 정말 궁금해서 직장 상사께 물어본바 ○○우정청에 근무하는 ○○○ 서기관임을 알아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블로그도 운영한다는 사실을 알고 인터넷 검색을 통하여 그분의 블로그에 접속하여 보내 주신 선물과 정성스럽게 쓰신 엽서 정말 고맙게 잘 받았다는 댓글을 달았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가슴 뭉클한 댓글이 달렸습니다.

“어휴 부끄럽습니다. 늘 배려하고 베푸는 삶으로 저를 부끄럽게 만드는 님은 살아 있는 부처요, 작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흔들릴 때마다 님의 모습 떠올리며 정진 또 정진하겠습니다”

이를 계기로 얼굴 한번 마주한 적이 없는 두 사람 간의 소통이 블로그에서 댓글로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주로 집배 업무를 수행하면서 현장에서 일어나는 어려운 점을 하소연하였고, 그분은 저의 냇두리를 산(山)처럼 묵묵히 받아주고 보듬어 주면서 저의 고단한 삶을 강물처럼 어루만져 주었습니다. 직급으로는 저는 서기(書記)이고, 그분은 서기관(書記官)이었습니다. 서기관과 서기는 글자 한 자 차이지만 현실에서의 벽이 얼마나 높은지 공직 생활을 해 보신 분들은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은 그러한 벽을 과감히 허물고 제가 당신 곁으로 다가오도록 마음을 여신 것입니다.

어느 날 그분의 댓글에서 감기로 기침이 심하다는 사실을 알고, 프로폴리스가 목감기와 기침에는 잘 듣는다는 제 경험을 말씀드리고, 집에 남아 있는 프로폴리스 한 병을 보내 드리겠다고 했더니 마음으로만 받겠다고 극구 사양하셨습니다. 그래도 그동안 그분이 제게 해 주신 위로의 말 한마디가 고맙고, 기왕 꺼낸 말이기에 정말 순수한 마음에서 보내 드리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공직자 선물 관련 법에서 공무원 상급자에게 선물을 보내는 기준을 찾아보고 법 위반이 되지 않는 범위에서 기침과 목감기로 고생하고 있는 그분께 목에 뿌리는 액상 스프레이 프로폴

리스 30ml 1병을 맘 편하게 보냈습니다. 그리고 3일이 지나 우체국 발착 사무실에서 택배 분류 작업을 하는데, 제 이름으로 온 택배를 발견하였습니다. 발송인을 보니 ○○우정청에 근무하는 그 서기관이었습니다. 택배 분류 작업을 마치고 열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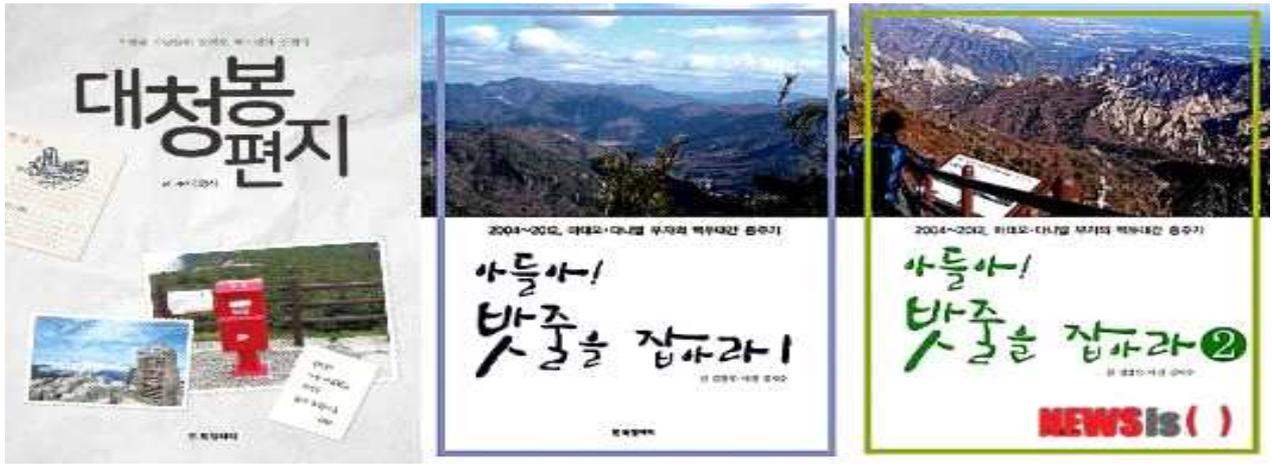
김성호님께!
 01세 대청봉 다녀서 오늘 안의 서기관으로부터
 나의 보배로운 택배를 건네받았습니다.
 사모 메일을 통해 완곡하게 거절의사를 밝혔
 는데도 약을 보내주셨네요. 고맙고 감사한 마음
 이구말귀할 수 없는 다시 돌려드리겠습니다.
 건강하시며 좋은 복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원래 없던 의욕이
 생겼습니다. 제 마음을 잘 부탁드립니다.

보니 제가 보낸 택배 박스가 개봉도 되지 않은 채 들어 있었고, 그 택배 박스 위에 왼쪽 엽서가 붙어 있었습니다. 엽서를 읽는 순간 망치로 정수리를 한 대 얻어맞은 것처럼 한동안 정신이 멍했습니다. 어쩌면 이렇게 상대를

배려하는 마음으로 품격 있게 거절할 수 있는지, 그 서기관이 어떤 분인지 더욱 궁금해졌습니다. 그리고 그 택배 상자 안에 추가로 동봉된 메모지에 아래와 같은 글이 정성스럽게 적혀 있었고, 책 3권이 더 들어 있었습니다.

“백두대간 15년의 땀과 눈물, 고통과 환희가 담겨 있는 책 2권을 보냅니다. ‘아들아 밭줄을 잡아라(1, 2권)’ ‘대청봉편지’입니다.

힘들 때마다 작은 위안이 되었으면 합니다. 백두대간 마루금 푸른 물결이 넘실대는 5월입니다. 늘 푸르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책 첫 페이지에 저자의 친필 서명이 되어 있었습니다.
 “참 좋은 사람은 그 자신이 이미 좋은 세상이고, 길 찾는 사람은 그자신이 이미 새 길입니다. 2018년 푸른 봄날”

또 한번 감동을 했습니다. 그분이 책을 두 권이나 쓰신 분인 줄 몰랐습니다.

주기만 하고 받지는 않는 그분께 고맙고 감사한 마음에 저도 그냥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남은 공직 생활 동안 더 좋은 리더가 되시라는 메모와 함께 '리더의 명화수업'과 '조선산책' 두 권의 책을 보냈더니, 얼마쯤 지난 후 다음 글이 적힌 엽서와 함께 제가 보낸 책이 되돌아왔고, 그

택배 안에는 초코파이 한 봉지와 짜 먹는 홍삼스틱 한 개가 동봉되어 있었습니다.

김영호님!

선생님께는 평소 언뜻 배웠지만 애써 잊지 않고 있습니다. 누구도 나의 양과 노력을 알아주지 않을 때 힘듦 위로를 했습니다. 리더는 알아주지 않는 리더해주시고 칭찬해주시는 사람입니다. 보내주신 두 권의 책 정말 읽고 돌려드립니다. 좋은 마음입니다. 고맙습니다. 2018. 6.

엽서의 글 행간에는 리더의 품격(品格)이, 초코파이 봉지에는 리더의 정(情)이, 홍삼스틱 안에는 리더의 청렴(淸廉)함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말단 직원에게도 존댓말을 하고, 사적인 일정에는 비서 없이 혼자 움직였고, 마지막 가는 길마저도 소탈했던 최근 타계한 L그룹의 K회장, 현장에서 부대끼며 우편물을 배달하는 말단 집배원과 소통하며 그의 힘든 삶을 보듬고 어루만지면서 사기를 진작시킨, 품격 있으면서도 소탈하고 청렴한 ○○○ 서기관의 모습을 보면서 품격과 청렴도는 정비레한다는 법칙을 발견했습니다. 특히 요즘처럼 막말과 갑질이 난무하는 기업들의 행태를 보고 있노라면, 그 법칙은 더욱더 잘 맞아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 글이 저의 칭찬 글을 올린 고객과 저와 소통하며 아직까지 얼굴 한번 뵈지 못하고, 전화 통화 한번 한 적이 없는 ○○○ 서기관께 누가 되지 않았으면 하는 바

람 간절합니다.